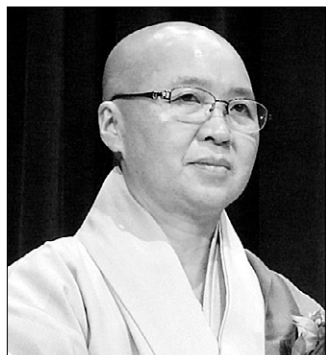


상담개발원 원장이·취임



담교 스님

불교계를 대표하는 상담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의 제3·4대 원장이·취임법회에는 눈물과 감동이 함께했다.

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박물관 지하 2층에서 개최된 이·취임법회에서 제3대 원장 정덕 스님 송별 영상이 상영되자 참가자들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정덕 스님은 이임사에서 "더 잘 해주지 못하고 짐을 지우고 가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이어 스님은 "개발원 초창기 멤버인 일면 스님, 정목 스님, 성관 스님, 정오 스님, 덕진 스님과 여러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 상담개발원을 위해 끊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약속했다.

이어 제4대 신입원장 담교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이 11주년, 자비연화화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책임감을 느낀다"며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 준비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스님은 상담대학 실습 프로그램 강화, 발전 방향에 대한 포럼 개최 등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이상연 기자

미당기념사업회 출범

시인 미당 서정주 열반 10주기를 맞아 미당기념사업회가 공식 출범했다.

미당기념사업회는 1월 27일 서울 여중동 '문학의 집'에서 출범식을 열고 문화평론가인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기념사업회는 오는 4월 미당의 고향인 고창 선운사에서 '동백꽃 재현' 재현을 시작으로 미당전집 발간과 미당학회 구성, 유품 전시, 다양한 시 낭송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東大 약학대 유치 못하면 '사표'

동국포럼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강연... "동대 발전 계기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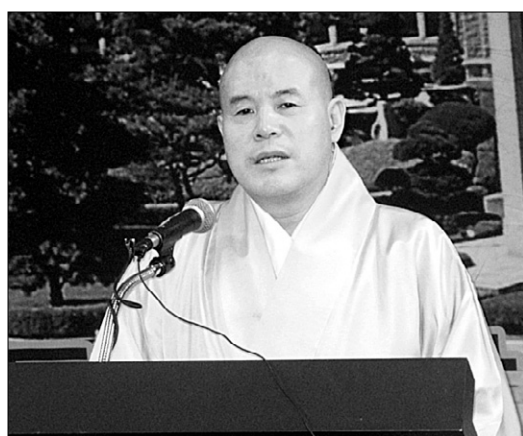
"조계종립 동국대의 재도약은 약학대학 선정부터 시작됩니다. 동국대에 약학대학 유치가 실패하면 조계종 총무원장인 본인을 비롯해 이사장 정연 스님, 오영교 총장 함께 사표 낼 각오합니다." (정중, 박수와 웃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6일 소피텔 엠버서더에서 개최된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이연택) 동국포럼에서 이 같이 강연했다.

동국대, 고려대, 단국대 등 전국 33개 대학이 약학대학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정부의 신설 약학대학 선정 발표까지 미뤄진 상황에서 있는 발언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연에서 자승 스님은 "첫 신년 하례의 모인인 자리지만 덕담을 말하기에 동국대가 처한 현실은 너무 어렵다"면서 이사장 스님, 오영교 총장, 이연택 총동문회장의 취임사를 소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사장 스님은 동국대의 사회적 평가 하락을 우려했고, 오 총장은 외부기관 평가 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동국대 총동창회 동국포럼에서 약학대학 유치를 통한 동국대의 재도약을 강조했다.

과의 참담함을 격정했다. 이연택 총동문회장은 종단·재단·학교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시켜 조계종립 명문사학 동국대의 위상을 회복하자고 제언했다"며 "동국대 제2의 도약은 신설 약학대학 유치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국대 동문과 불자의 역량 집중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지난해 이연택 총동문회장 예방 때 총동창회기금 30억 원 모인, 총동창회 장학생 40명

으로 증원 등 총동문회 목표치를 소개받았다"면서 "총동창회가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39억 원의 모금을 달성하고, 장학생도 200명으로 늘리겠다는 성과가 보여준 동국대의 역량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2010년 조계종의 개치프레이즈가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진흥'으로 종단도 동국대와 화합·상생하는 새 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면서 "동국인 모두

가 한마음 한뜻으로 약학대학을 유치해 동국대 발전과 불교 증흥의 계기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동국대는 지난해 의생명과학 캠퍼스가 건립될 고양시와 메디컬러스터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각계인사들과 약학대학 유치지원단을 구성했다. 또, 고양시 시의회가 '고양시-동국대 약대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하는 등 약학대학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원래 약학대학 신설 계획보다 증원을 검토 중"이라며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신설 약학대학 선정 결과발표를 연기했다.

신설 약학대학이 유치되면, 우수한 공과계 학생들이 풀리면서 학교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고, 약학이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오는 분야로 대학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점, 산학협력을 통한 약학산업 참여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대학들은 약학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동섭 기자

2010년 소통으로 이끌자 '서원'

중앙신도회 재가불자 신년하례회 봉행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는 조계종 집행부의 신년기조 '소통과 함께하는 불교'에 부응해 2010년 한해를 '분별과 경계를 넘어선 소통의 장'으로 이끌 것을 서원했다.

중앙신도회는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재가불자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앙신도회는 부설기관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이사장 직무대행 김규빈)을 통해 '명절과 기제사에 속 대신 차(茶)를 올림시다'라는 불자생활문화 캠페인을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불교계 사회적기업 (주)연우와함께(이사장 이재희)를 통해 불교경제활동의 초석을 마련하고 불



2010년 재가불자 신년하례회에서 혜총 스님(오른쪽)과 김의정 회장은 참가자 모두에게 윤장하례를 건넸다.

교계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동영상 신년법어에서 "중앙신도회의 상설기관 정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등 올해에는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며 "승가와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불교를 위해서 가행정진(加行精進)하자"고 당부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사람의 몸을 받아 불교발전에 앞장서는 불

자가 된 것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불교를 위한 불교가 아닌 행복한 세계를 위한 불교의 역할을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교와 전법을 해 달라"고 축하했다.

이에 앞서 김의정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솔대신 차를 올림시다' 캠페인, 사회적기업 '연우와함께' 등 부설기관과 소속단체들이 통합적 시너지를 창출해 진일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차 올리기' 불자생활문화 캠페인 실천을 위해 참가자들에게 윤장하례(輪掌掌禮)와 함께 다구세트를 증정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특임장관, 국회 정각파 고문인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정각파 부회장 한나라당 안홍준·민중당 강정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한나라당 정병국·조윤선 의원, 서울시의회 문병열 의원 등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상연 기자

1000字 뉴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 영어법회 시범사찰 모집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어린이 영어법회 시범 운영 사찰을 모집한다. 시범사찰은 주1회 어린이 영어 법회 전용공간, 전담 교사 1인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찰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받아 2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어린이영어법회 교재 <헬로 달라스> 출판기념회 및 교재설명회가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27일에는 제4회 불교어린이지도사교시를 실시하며 접수는 19일까지다. (02)2011-1892, www.buddhism.or.kr

조계종 중앙선관위 시행규칙 개정 논의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18차 회의를 열고 "거주수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산중총회와 중앙총회의원 선거 시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주수 제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입자 △사중(寺中)소임자 △보시 지급 내역서 등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호법부에 현황 확인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2월 26일 열리는 제 219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불교단체연석회의 해인사 관련 공개질의서 전달

불교단체 연석회의(상임대표단체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는 해인사 관련 문제에 대해 대한불교 조계종의 입장 및 조치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1월 29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 호법부, 사회부, 재무부에 전달했다.

최근 해인사는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재추진, 합천군으로부터 해인사 소유 토지 강제 수용 공문 접수, 해인사 고불암 무량수전 경매 회부사건 등에 대해 불교단체가 나선 것.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불교환경연대 정우식 사무처장은 "불교 단체들은 1월 28일 '불교단체 긴급대표자회의'를 통해 해인사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조계종 총무원의 입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계획을 신속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토회 4일까지 9기 백일출가자 모집

정토회(대표 법륜)는 9기 백일출가자를 모집한다. 자기변화 프로젝트인 백일출가는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스님들의 출가 생활을 체험한다. 참가자들은 출가생활을 체험하고, 불교대학 강좌 및 경전 강좌로 불교교양도 쌓는다. 이와 함께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경주 순례와 NGO 실무실습도 진행된다. 20세 이상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홈페이지(www.jungto.org)에서 2월 4일까지이며 면접은 9일, 입방은 2월 22일이다. (054)571-8993

불교문화사업단 내나라여행박람회서 '인기'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월 27~30일 '2010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서 12개의 부스를 배치하고 16개 사찰이 참가한 가운데 연꽃 그리기, 단청 그리기, 오방색다식체험, 차담, 김등 만들기, 탁본수순건, 팔상도 모바일만들기, 인경, 법고 등 사찰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0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사업 공모

(재)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에서는 한국불교학의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연구자들의 독창적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제4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 1) 공모주제
 - 불교학(선학·교학)
 - 불교사·응용불교·불교문학·불교음악·불교미술·불교사회복지
 - 한국근현대불교와 선학원 등 불교와 관련된 자유주제
- 2) 지원자격: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이상(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
- 3) 선정규모 및 특전: 우수상(1명) 500만원, 학술상(3명), 1인당 300만원 등재후보지 "선문화연구"에 게재

4) 제출서류

- (1) 연구계획서: A4 10매 내외의 자유형식
- (2) 최근 5년간 연구 실적목록 1부
- (3) 연구 실적목록상에 기입된 실적을 각 1부
- (4) 이력서(주소·전화번호·e-mail은 반드시 기입할 것)

5) 제출기한 및 발표

- (1) 제출기한: 2010년 1월 29일 ~ 2월 16일 오후 5시까지
- (2) 선정 및 통보: 2010년 2월 23일(선정자에 한해서 개별통보)
- (3) 논문상시상식 및 학술회의: 2010년 5월 (예정)
- (4) 발표논문제출과 논문집 간행: 2010년 6월

* 주의사항

- 선정자는 2010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전반기 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 발표논문은 학계에 이미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한다. (연구내용의 표절 혹은 중복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수상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회의 발표 이후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게재해야 한다.

2 월례발표회

- 1) 발표주제
 - (1) 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 (2) 한국불교학과 불교사 및 응용불교학
 - (3) 한국근현대불교와 선학원
 - (4) 한국근현대불교사상 및 문화(불교문학·불교음악·불교미술 등)
- 2) 발표문 분량: A4 7 ~ 8매
- 3) 발표 자격: 박사과정 이상자
- 4) 발표신청기간: 연중 수시
- 5) 특 전
 - (1) 소정의 발표비 지급
 - (2) 심사 후 본 연구원 논문집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 (3) 등재후보지 "선문화연구"에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지 지급

* 문의 및 서류 제출처

110 - 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82번지 (재)선학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연락처 02)734-9653, 9657 팩 스 02)734-9622 홈페이지 http://www.seonhakwon.or.kr/seonli 연구원 메일 seonhakwon@paran.com

스님을 위한 설기문 교수의 '집중 최면 강좌' 안내

일 시: 2월 8일 ~ 10일 (2박 3일 집중과정) 장 소: 충남 공주시 전통불교문화원 교육비: 특별회비 200만원 (교재비 포함)

강사 소개

- ▶ 1997년 이후로 최면치료, 전생치료를 가르치기 시작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한 설기문 교수는 현재 동방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과(NLP최면학 전공) 교수로서 설기문마음연구소 및 한국NLP&최면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음.
- ▶ 현재 불교TV(btn.co.kr)에서 매주 '설기문박사의 마음특강 - 이제는 마음이다' 프로그램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최면치료, 전생치료, 병의치료의 다양한 치료원리와 사례들을 소개해 왔음
- ▶ 동아대학교 교수 역임 ▶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가 ▶ 전생치료 및 병의치료 전문가
- ▶ 최면치료 국제공인 트레이너 ▶ NLP 국제공인 트레이너
- ▶ 주요 저서: 최면과 최면치료, 최면상담, 에릭슨최면과 심리치료 외 다수

주요 교육 내용

- 최면의 개념과 종류
- 최면의 역사와 발전
- 최면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
- 최면유도의 원리와 기법
- 최면트랜스의 특징
- 자율훈련법과 활용
- 최면치료의 기초
- 최면치료의 과정과 기법
- 최면치료를 위한 심리학적 원리
- 효과적 최면치료를 위한 NLP적 원리
- 전생퇴행과 전생치료의 이해
- 병의현상과 병의치료의 이해
- 무의식의 원리
- 자기최면법과 활용
- 에릭슨최면의 이해

* 기타: 상세한 일정과 구체적인 안내 사항은 신청하신 분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① 본 과정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실 분들은 본 연구소로 직접 문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재 본 연구소에서는 6주간의 전생-병의치료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기문 마음연구소

서울시 중구 소공동 81번지 소공빌딩 3층 ☎ 02)757-8008 www.nlp21.com http://cafe.daum.net/trancenet (설기문NLP트랜스넷)